혁신적 포교 콘텐츠 개발…“사찰·단체 폭넓게 이용하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에게 듣는 성과와 과제
“3000여 자비 나눔 공동체 설립 임기 중 목표”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포교 종책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포교원이다. 현재 포교원을 이끌고 있는 제6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신도단체 관리 지원, 전법단 지원, 신도교육, 신도조직화, 계층포교, 포교콘텐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포교사업의 성격상 투자를 열심히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머리를 풀었다. 그만큼 디테일한 아젠다가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단시간 사업 성과로 부서의 장단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포교원은 지난해에만 계층별 명상 관련 치침서 · 워크북을 비롯해 가족법회 매뉴얼 2종, 사찰지역친화 포교방안 연구보고서와 유아 · 청소년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했으며, 한반도 정전 60주년 평화 행사를 종단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포교연구실에서 발간한 여러 지침서와 매뉴얼들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포교 콘텐츠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만나 지난해 포교원의 성과와 과제, 올해 계획들을 상세하게 들어봤다.

지난해 포교원은 여러 사업들을 전개했다. 주요성과를 정리한다면.

포교원은 두드러진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포교신도단체와 전법단의 관리 지원을 비롯해 신도 교육과 조직화, 계층포교, 포교 콘텐츠 연구 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교원은 일상 업무를 축적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일반 포교사 713명과 전문포교사 61명이 자격고시를 통해 최종 선발됐으며, 불교상담심리사는 12명(1급 2명, 2급 10명), 국제포교사 37명이 합격했다.

전법단은 기존 활동 중인 7개 전법분야(병원, 경찰, 군, 대학생, 교정교화, 장애인, 체육)에 이어 국제, 어린이 · 청소년분야 2개가 새롭게 구성돼 활동 중이다.

청년 · 대학생 포교활성화를 위해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콘서트를 진행하고 대학교 동아리 법당 보수와 새내기 모집 포스터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변화하는 포교 환경에 대한 종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찬회도 시행했다.

한반도 정전 60주년 평화행사를 종단적으로 시행한 것도 성과다. 범어사 새해맞이 법회를 시작으로 위령수륙재, 한국주재 UN외국대사 초청 만찬, KBS열린음악회,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 등을 개최하여 포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다양한 포교 콘텐츠들도 개발한 점도 눈길을 끈다.

포교원 산하 포교연구실의 성과다. ‘사찰의 지역친화 포교방안 수립 연구보고서, 한글의례의식집(CD)을 완료해 보급했으며, ‘응답하라 아바로’ 어린이 유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포교원 M-Library’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포교원 M-Library’는 포교원 소식과 행사, 법회, 포교관련 자료, 경전 자료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도서관을 의미하며,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눠 활용할 수 있다.

‘응답하라 아바로’는 동자승이 제한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관세음보살의 42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이다. 초기 화면에 만화를 삽입해 관세음보살 이야기에 몰입도를 높여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상담이 있는 명상〉 등의 지침서와 〈명상과 함께하는 분노조절 프로그램〉 지침서와 워크북을 개발했으며, 한

포교 DB ‘M-라이브러리’
‘108이야기’ 등 개발 성과
‘지역 전법 활성화’ 올해 기조

마음과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꽃을 피우는 나무-초등용, 중등용〉 보급에 주력했다. ‘가족법회 활성화 프로그램(2개 유형/PPT 5종)’과 ‘가정에서의 가족법회 활성화 프로그램(7개 유형/PPT 1종)’을 개발한 것도 주요한 성과다.

또한 사찰의 지역친화 포교방안 수립 연구서도 남다른 가치를 가진다. 도-농 사찰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포교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 연구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포교원은 포교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포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일선 사찰과 단체가 폭넓게 이용하길 바란다.

올해 포교원은 ‘지역 전법 토대 구축’을 천명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무엇인가?

지역은 구체적인 포교의 장으로 중앙과 지역이 서로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은 명약관하하다. 올해는 인천지역, 울산지역, 충남 서부지역 등 3~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현황을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포교역량으로 볼 수 있는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인력을 정리하려 한다.

먼저 지역현황 공유와 간담회 의제를 도출하는 사전간담회를 진행한 후 지역현황에 대한 공유와 각각의 역할 속에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시작한 국민 힐링 투어 사업은 금년 지역 전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포교원이 시작한 ‘국민 힐링 투어’는 자존감을 회복해 지역 주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하려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단체들이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포교원에서 직접 주최하기 보다는 2월 11일 소방방재청 직원 교육에 불교계 명사 초청 강의처럼 필요한 곳에 요청이 있거나 지역전법네트워크가 성과가 있어 지역 단위에서 요청이 오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도품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신도품계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2011년 신도품계 제도가 제정됐지만 아직 정착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언론 매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를 알려왔으나 아직은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사찰의 역량이나 현실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품계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사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과 신행, 봉사 활동이 활성화돼야 하며 신도회 구성 및 활동 독려 등 주지스님의 원력이 요구되며 신도 스스로 신행 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포교원은 총무원, 중앙신도회와 함께 TFT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신도 종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포교원의 장기적 종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달라.

올해 포교원은 ‘사찰과 교구, 지역전법 중심 토대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반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포교원장으로서 최종적인 목표는 자비 나눔 공동체를 3000개가량 만드는 것이다. 굳이 큰 공동체가 아니라 5명 이하의 소규모 공동체라도 좋다.

불교의 기본은 ‘자비 나눔’이다. 불자들이 스스로 자비 나눔 공동체를 구성해 포교하고 봉사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면 그곳이 바로 불국토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포교종책 개발과 관리 · 지원에 매진하겠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 전법 토대 구축’을 올해 기치로 세운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최종목표로 “자비나눔 공동체 3천 개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이 만든 다양한 포교 콘텐츠들. 일선 사찰과 포교단체에게 유용한 콘텐츠다.

2013년 포교원 부서별 주요성과

포교팀

포교 지평 넓혀

2013년에는 일반포교사 713명, 전문포교사 61명, 불교상담심리사 12명, 국제포교사 37명 등 다수의 포교사가 배출되는 한해였다. 또한 종단에서 지원하는 국제불교 학교 1기 졸업생들이 면접을 통해 9명의 신규 국제포교사를 탄생시킨 원년이기도 했다.

전법지원팀

다양한 현장 지원 성과

전법단은 병원, 경찰, 군, 대학생, 교정교화, 장애인, 직능 · 체육 등 기존 활동 중인 7개 전법분야에 국제, 어린이 · 청소년분야를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장애인전법단에서 제작한 수화동영상은 장애인 포교에 지평을 넓혔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전법중심도량 14곳을 선정해 장학결연사업 및 포교물품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했으며, 서울 광림사와 화계사를 장애인 전법 중심도량으로 추가 지정해 특수계층 분야의 포교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신도팀

종단 신도증 일원화 추진

포교원 신도지원팀은 현재 사찰신도증과 종단 신도증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봉은사와 통합신도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서울지역 주요 사찰을 우선으로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지난 해 언론사불자연합회 및 메트로불자회의 등록과 함께 올 1월 예비역장성불자회가 등록하면서 현재 13개 신도단체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포교연구실

전문 콘텐츠 양산의 산실

포교연구실은 201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포교종책 생산’ ‘신도교재 개발 연구’ ‘포교프로그램연구 개발’ 등의 주요 사업을 전개했다.

청소년 심성계발 프로그램에도 주력, 적경 스님의 〈상담이 있는 명상〉 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했고, 〈명상과 함께하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지침서와 워크북을 개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에 대해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4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운영 완료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연등시공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사찰명 인쇄 접수중 마감임박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팔각주름등



연꽃만월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 화 연 등



정품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BORYEON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 화 031)526-2201 / 031)526-2202